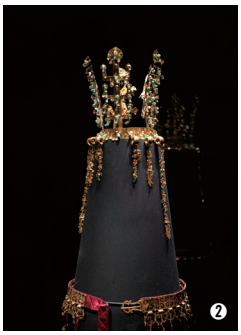
대한민국 문화유산의 보물창고

국립중앙박물관

글 윤혜원 **사진** 조채은



❶ '사유의 방' 속 반가사유상의 모습
❷ 황금의 나라, 신라의 상징인 금관
❸ 조선시대 유물이 전시된 중·근세관

용의 위엄이 느껴지는 고구려실의 청룡도

모두를 위한 역사 놀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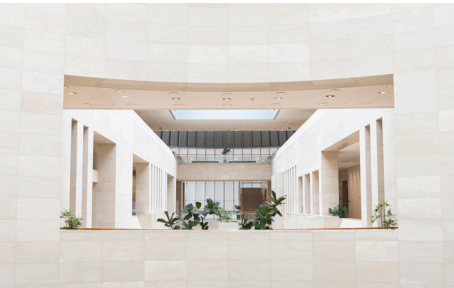
남산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호수에 박물관이 거울처럼 비쳐 보이는 '거울못'을 지나 계단을 올라가면 탁 트인 전경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개장 시간이 다가오자, 박물관 입구는 관람객들로 북적인다. 입장이 시작되고, 걷다 보니 중앙 통로 한가운데인 '역사의 길'에 세워진 아파트 3층 높이의 디지털 광개토대왕릉비가 눈에 띈다. 이는 높이 8m, 너비 2.6m 규모의 LED 기둥으로, 실제 광개토대왕비의 크기와 재질, 비문 내용이 영상으로 재현되어 있어 감탄을 자아낸다. 그를 둘러싼 상설전시관은 1층부터 3층까지 총 6개가 있다. 각 관에서 시대와 주제별 작품 관람이 가능하다. 상설전시 외에는 남인도의 불교미술품을 만나보는 기획전시, 영조와 정조의 탕평정치의 밑받침이 된 글과 그림을 조명한 특별전시 등 다양한 주제의 전시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숨겨진 용 발견하는 재미

현재 상설전시관에서는 2024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용을 찾아라' 전시가 진행 중이다. 4월 7일까지 열리며, 1~3층에 이르는 전시관 곳곳에 용과 관련된 작품 15건이 숨겨져 있다. 관람객들은 전시를 둘러보며 다양한 형상의 용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각 전시품 옆에 있는 QR코드를 찍으면 작품의 뒷면이나 비교 작품, CT 사진 등이 담겨있다. 작품 속 담긴 이야기도 확인할 수 있어 관람의 재미를 더해준다.

1층 선사·고대관의 고구려실에서는 고구려 고분인 강서대묘의 '청룡도'를 만날 수 있다. 당시 고구려 사람들은 죽은 자가 영원히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무덤을 둘러싼 네 벽에 동서남북 방위를 다스리는 사신(四神)을 그렸다고 한다. 중·근대관에는 고려 13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청동 범종이 있는데, 종 윗부분

아청색 곤룡포의 태조 어진



전시 정보

갑진년 맞이 용을 찾아라

위치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일정 : 2023.12.20 ~ 2024.4.7 (4.1 휴무)

시간 : 월, 화, 목, 금, 일요일: 10:00 ~ 18:00 (입장 마감: 17:30)
수, 토요일: 10:00 ~ 21:00 (입장 마감: 20:30)

입장료 : 무료

에 여의주를 문 용이 마치 살아있는 듯 역동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조선관의 태조 어진(御眞, 임금의 화상) 곳곳에는 왕을 상징하는 용이 있다. 가슴과 어깨에는 금실로 수를 놓은 오조룡이 있고, 허리띠와 왕이 앉는 어좌에도 용이 장식되어 있다.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어진을 바라보다 보면 예로부터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로 표현되었던 용의 기상이 느껴진다. 이외에도 2층 서화관에서는 조선시대의 용 그림들을, 3층 조각공예관에서는 다양한 용이 그려진 청자와 분청사기를 관람할 수 있다.

MZ들도 찾는 '핫 플레이스'

국립중앙박물관은 국내 최대규모의 박물관인 만큼 거대한 크기를 자랑한다. 일부 관람객들은 1층만 보고 지쳐 돌아가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따라서 핵심 작품만 살펴보고 싶은 이들에게는 먼저 2층 반가사유상이 있는 '사유의 방'을 볼 것을 추천한다. 어둠을 통과해 전시공간에 들어서면 조명에 은은하게 빛나는 두 반가사유상이 보인다. 관람객들의 '불멍(불상을 멍하게 바라봄)' 공간으로도 자리 잡은 이곳은 사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상 쪽이 더 높게 설계된 구조다. 황토벽에서 나는 은은한 흙냄새가 어우러져 마치 다른 차원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최근에는 반가사유상을 본뜬 미니어처 굿즈가 인기를 끌며 품절 대란을 일으키기도 할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비록 미니어처이지만, 집에서도 반가사유상의 온화한 미소를 감상하고 싶은 것이다.

상설전시관에는 이외에도 신석기시대의 빗살무늬 토기, 신라시대의 금관, 조선시대의 대동여지도 등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마음에 쉼이 필요할 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살아 숨 쉬는 역사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